

산삼나르미

무역학과 심 중 석 교수



충북 보은우체국에 근무하는 집배원 길만영이라는 분이 계십니다(이 분에 얹힌 사연은 이미 세상에 알려졌기에 그 실명을 거론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무례를 염려하고 이 지면을 빌어 당사자에게 이해를 구합니다. 이하 ‘이분’이라 칭합니다). 이분은 일반인이 평생에 한 번을 구경하기도 힘들다는 산삼을 놀랍게도 지난 3년 동안 100여 뿌리를 쫓았다고 합니다.

더 놀라운 것은 이 산삼을 그 어디에도 팔지 않고 오로지 이분의 마을 어르신께 선물로 드렸다고 합니다. 그 이유는 이 산삼을 드신 어르신이 이로 인하여 건강을 되찾고, 설령 건강을 되찾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로 하여금 산삼으로 인하여 건강해지고 있거나 건강해졌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함이 있었다고 합니다.

이 소식을 접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미친 짓이라고, 녀 빠진 짓이라고, 어리석기 그지없는 일이라고 놀려댔지만 이분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아낌없이 산삼을 나누었다고 합니다. 한번은 친한 친구들이 이분을 붙잡고 그저 소원이니 한 뿌리만 달라고 했을 때, 이분은 짐짓 고민 끝에 산삼 한 뿌리를 술에 담가 이를 친구 여럿이 한 잔씩 나누어 먹을 수 있게끔 그래서 모두가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선심을 베풀었다고도 합니다.

또 한 번은 어느 한 사람이 이분에게 그간 켜 산삼 중에 한 뿌리라도 자신을 위해서 먹을 수는 없었느냐고 따지듯 물었을 때, 이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수 없었다고, 정확히는 먹지 않아도 되었다고 답변했다 합니다. 왜냐하면 집배할 때마다 마을 어르신이 자신에게 건네주신 커피 한 잔과 건강드링크 한 병이 산삼보다 더 큰 약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먹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이분의 변이였습니다.

이에 더하여 주변의 또 다른 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산삼 몇 뿌리만 내다 팔았더라도 평생에 만져보지 못할 일확천금을 손에 쥌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, 이분은 재차 자신은 지금 우체국에서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고 있고,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과하게만 쓰지 않으면 다달이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었기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며 손사래를 쳤다고 합니다.

지난 날 이분은 산삼을 캐면서 몇 가지 소중한 교훈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곧 산삼을 나누어주겠다고 생각하고 산에 오르면 그날따라 유독 산삼이 눈에 잘 띄었고, 머릿속에 산삼을 드시고 행복해 하시는 어르신의 얼굴을 떠올리면 더 많은 산삼이, 한걸음 더 나아가 아프신 마을 어르신을 생각하면 더더욱 많은 산삼이 이분의 눈에 비쳤다고 합니다. 일례로 몸이 아프신 어른들의 모습을 떠올렸던 어떤 날은 한꺼번에 12뿌리의 산삼을 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. 어느 날은 산에서 내려오면서 거동이 불편한 지나가는 사람 그 누구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무작정 산삼 한 뿌리를 드렸더니 너무도 좋아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고 이분 또한 더 없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고도 했습니다.

산삼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분의 선행은 이뿐만이 아닙니다. 지금까지 20년이 넘게 우편집배

원 생활을 하면서 우편물 배달은 기본이고, 마을 주민들을 대신해 각종 생필품 심부름에, 공과금 납부에, 손과 발이 되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몇 년 전에는 한파에 쓰러진 독거노인을 구조해 세간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. 나아가 이 같은 선행이 세상에 알려져 세상이 이분에게 그 보답으로 수여한 문화대상 시상금 또한 고향 보은의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모조리 쾌척하기도 했습니다. 이분의 자랑스러운 이름을 이 지면에서 재차 불러보기에 보은우체국 집배원 ‘산삼나르미’ 길만영씨입니다.

우리는 지금 무엇을 나르고 있습니까? 아니 지금 무엇을 나르기 위해 살아 숨 쉬고 있는가요? 보다 정확히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젊음의 때를 지나며 그 어디에 삶의 목적과 비전을 두고 있는지요?

푸르고 높은 이 청명한 가을하늘 아래 우리 마음 속 한 켠에 그간 꼭꼭 숨겨져 있었던 저마다의 값진 산삼을 너나 할 것 없이 쏙쏙하게 캐내어 척박하고도 메말라 있는 이 세상 앞에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두 자랑스럽게 목청껏 불러볼 수 있는 ‘행복나르미’들로서의 비호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.